

'충장22' 지역 예술인 창작 레지던스 자리매김

개관 2주년 작가·주민 소통 문화 비즈니스 모델 받들음 충장역사문화관 10월 개관...지역 대표 문화공간 기대

올해로 개관 2주년을 맞은 '충장22'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레지던스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작가·주민·상인이 함께 문화로 소통하는 교류의 산실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옛 간장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난 2020년 5월에 개관한 충장22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탁업체로 선정된 사회적기업 (주)상상소가 그동안 충장로 상권과 연계한 협동 프로그램 개발, 버스킹 공연, 플라마켓을 개최하는 등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 운영해왔다.

하는 지역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 레지던스 사업은 ▲충장로 4·5가 뷰티산업 및 명인 명장들과 연계한 협동 프로그램 개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문화재단, 광주비엔날레 등과 연계한 입주 작가와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이 다.

특히 충장22 입주 작가에게 기본적인 예술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예술적 성과를 거두고, 지역민과 만나 문화적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충장22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던 '도심 속 힐링 예술 아카데미'를 비롯해 다양한 작품을 참여하며 즐길 수 있었던 '충장22 문화가 있는 날' 역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충장22 증축 공사가 완료되면 '도심 속 힐링 예술 아카데미 S.O.S'를



옛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난 2020년 개관한 '충장22'가 충장로 상권과 연계한 협동 프로그램 개발, 버스킹 공연, 플라마켓을 개최하는 등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비롯해 '10월의 어느 멋진 날 충장22', '온라인 상설 버스킹 충장 비긴어게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19회 추억의 충장축제 월드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미디어아트, 회화, 무용 등 다채로

은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작가 개인 또는 콜라보 작품 전시와 공연 등 작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며 문화·예술 향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충장22에 충장로의 역사를 집대성한 충장로만의 고유한 차별성을 갖춘 콘텐츠 전시·체험 공간인 '충장역사문화관'도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개관 이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많았을 텐데 어려움을 극복해준 입주 작가들에게 감사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충장22가 충장로 상권의 명성을 되찾는 거점시설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머물며 창작할 수 있는 지역 대표 문화공간, 지역 콘텐츠 연계 비즈니스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장22는 '도시재생선도지역 3대 거점조성 사업' 일환으로 총사업비 73억 원의 용역 면적 1천883㎡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레지던스 독립실 22개, 다목적 전시공간 등으로 꾸며졌다. 이곳은 작가와 크리에이터를 위한 주거 및 작업실이 22개라는 점과 도로명 주소가 22번길이라는 점에 착안해 충장22로 명명했다. /오복기자

광산구,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생 컨설팅 지원

'골목상권 상생 멘토단' 운영...26일까지 '멘티 사업장' 모집

광주 광산구가 오는 26일까지 '광산 골목상권 상생 멘토단'에 멘티로 참여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모집한다.

'광산 골목상권 상생 멘토단'은 공간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이 관공서 주도로 이루어졌던 것에서 벗어나 '선배 사장님'이 직접 체득한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실천형 상호학습 형태로 운영한다.

광산구 사장님 아카데미 100명의 수료생과 골목상권 상인회 소속 '베테랑'

자영업자들이 멘토로 나서 장사 전략과 현장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동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나눌 예정이다.

멘토링은 매주 1회, 8주 과정으로, 실제 현장 진단에 기반한 학습을 위해 멘토·멘티 사업장을 상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대표메뉴 선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마케팅 ▲배달업 진입 ▲적정 가격 책정 ▲위기 국

복법 등을 함께 학습하고 고민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또 전문가를 '골목상권 총괄 매니저'로 지정, 멘토단 운영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모든 멘토링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업장 운영에 고민이 있는 광산구 자영업자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멘티 신청은 전화 또는 온라인(<http://naver.me/1DbleSnH>)으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기업경제과 (062-960-3878)에 문의하면 된다. /이유근기자

서구 '서창들녘 익새축제' 착수보고회 개최

광주 서구는 7일 "최근 서구청 들불홀에서 '제7회 영산강 서창들녘 익새축제 행사대행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구에 따르면 착수보고회에는 지역주민대표, 관계부서, 지역문화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창들녘 익새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평가한 국내 총 1천여개 축제 중 상위 6%에 속하는 축제로 2022년 광주시

대표축제로도 선정된 바 있다.

오는 10월7일부터 10일까지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 일원에서 펼쳐질 이번 축제는 '은빛 익새가 전하는 가을의 진심'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개최된다.

시민축제학교에서 시민이 직접 만든 영산길 놀이를 시작으로 이영민 대표의 개막공연,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야간경관조성, 축제장 인근지역 상권과 연계한

세일페스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아울러 ▲음악과 함께하는 익새길 걷기 ▲야간 미디어아트 포토존 ▲시크릿씨클(익새를 360도로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 등 타 축제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있는 프로그램들도 준비된다.

또한 ▲익새발포토존 ▲제로웨이스트페어 ▲다회용기체험 ▲업사이클링 체험 등 익새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마련될 수 있다. /한재영기자

남구,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 아동까지 확대

지난달 장산초 학생 40여명 대상 설명회 개최

광주 남구는 7일 "건강위험 요인 보유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을 아동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스마트폰 앱과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 활동량계를 연동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을 말한다.

남구는 지난 2017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현재까지 진행해 왔으며 올해부

터 사업 대상을 아이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연령대 확장을 위해 남구는 지난달 26일 장산초등학교를 방문해 5학년 2개반 4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 아이들은 스마트밴드와 헬스케어 앱을 사용하며 건강관리에 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은 내년 1월초까지

약 6개월 동안 ICT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매주 월요일 구청에서 발송하는 건강 정보를 활용해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도 확립하고 있다.

남구의 경우 지난 2019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 보건소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권역별 평가에서 추진 실적이 가장 뛰어난 광주·전북권 거점 보건소로 선정됐다.

또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 주관 '제12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 사업 평가'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성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다민기자

북구 '차량등록민원 체증 해결 시스템' 눈길

광주 북구가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구축한 '차량등록민원 체증 해결 시스템'이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청 차량등록민원실 내 비치된 터치형 키오스크(순번발권기)는 구 홈페이지와 연동돼 민원인들은 PC나 모바일로 민원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민원인들은 차량등록을 위해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북구는 코로나 19가 재확산 조짐

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원실 내 대면 접촉 최소화해 감염 확산 방지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기 현황은 북구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메뉴의 '차량교통'-'차량등록민원 대기 현황' 카테고리에서 접속해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차량등록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민원 북구청장은 "민원인들의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인 입장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재영기자

동구 '건강 도시 활동단' 본격 운영

광주 동구는 7일 "건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건강 도시 활동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빛고을 50+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창단된 '건강 도시 활동단'은 매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곳곳에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파악해 구정에 반영하고, 안전하고 건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8명의 활동단을 구성했으며 직무 관련 기본교육을 수료하고 향후 4개월 동안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오복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